2022학년도 기금운용심의회 회의록

회의명	2022학년도 기금 운용심의회 회의록	기록인	정유진
일시	2023.01.16(월) 09:00	장소	대학본부 2층 총장실
참석현황	정원: 10명 참석: 8명 위임: 2명 참석: 박성태 위원장(총장), 황진수(부총장), 정성태(기획처장), 김광태(관리처장), 양현호(예산과장), 권경환(대외협력홍보과장), 최덕문(변호사), 김진욱(학생대표) 위임: 노시현(세무사), 김무경(학생대표)		
안건	1. 2022학년도 임의적립금 인출 및 적립 2. 교비기금 대체 3. 3년 만기 정기예금 운용		

성 원 보 고 : 전체 위원 10명 중 참석 8명, 위임 2명으로 성원되어 개회를 선언하다.

▣ 개 회 : 기금운용심의회 개회를 선언하다.

▣ 전 회의록 낭독

▶ 간사 : 2021학년도 회의 안건에 대해 설명함.
- 2021학년도 안건1. 기금의 인출과 적립 사항에 대하여 보고함.
- 2021학년도 안건2. 기금운용심의회 규정 개정에 대하여 보고함.
- 기존에는 위원이 총 7인 이내로 선임이었지만, 작년 15인 이내로 규정이 개정되면서 이에 맞춰 총 11명의 위원이 선임되었으며, 현재 학생처장직이 공석인 상태로 총 10명의 위원이 선임된 상태임.

▣ 보고사항

▶ 간사 : 기금운용심의회 개최 취지와 현재 우리대학의 기금운용 상태에 대해 설명함.
- 과거 적립액이 큰 수도권 대학에서 적립금을 투자상품으로 운용하다가 손해가 발생한 일이 있었으며 이러한 기금 투자 및 자산 운용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취지하에 기금운용심의회가 개최되어졌음.
- 우리 대학은 기본적으로 원금손실 가능성이 있는 상품보다는, 정기예금으로 안정적으로 운용하고 있는 상태임.

▶ 간사 : 2022학년도 적립금 자금현황 상태에 대해 보고함.
- 2022학년도 기금별 현황에 대해 보고함
- 2022학년도 은행별 기금 예치 현황에 대해 보고함
- 과거 저금리시대에는 이율이 2% 초반대였음. 작년 하반기부터 금리가 많이 인상하여 4~5% 초반대로 이자 금리 제안받아 정기예금을 예치한 상태임. 하지만 현재 이자 금리가 계속 떨어지고 있는 상태여서 상황에 맞게 은행별로 정기예금을 예치할 예정임.

▶ 박성태 위원장(총장)
- 발전기금 적립금 잔액 124억 외에 다른 발전기금 재원 현황에 대해 물음.

▶ 간사
- 발전기금 적립금을 정기예금으로 운용하는 것 외에 약 20억정도의 금액을 요구불 예금으로 예치된 상태임. 예금화 되어 있지 않은 재원으로는 최근 전 총장님 일가에서 기증한 감정대 약 8억원 정도의 부동산이 있음.

▶ 황진수 위원(부총장)
- 기금운용심의회 규정 사항에는 기금 투자 관리 및 자산 운용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이 나와있지 않은 상태임. 기금 운용에 대한 별도의 규제 사항이 있는지 물음.

▶ 간사
- 기금 투자 관리 및 자산 운용에 대한 별도 제한 및 제약은 없는 상태임. 현재 기금 운용에 대한 금융삼품의 범위에 대해 한국사학진흥재단에 질의 후 회신 받아 처리하고 있음.

▶ 황진수 위원(부총장)
- 2023학년도 기금운용심의회에서는 활용 가능한 투자 상품 및 다른 대학 기금 운용 사례에 대한 조사를 추가 요청함.

▣ 안건심사

▶ 간사 : 2017-2022년도 연도별 기금변동 현황에 대해 설명함
- 전년대비 2018년도 100억, 2019년도 54억이 인출되었으며 주 인출 요인으로는 프라임관 관련 건축 신축 비용임.

▶ 양현호 위원(예산과)
- 그동안 신축교사에 투입된 자금이 가장 큰 부분이 프라임관 제2의학관 시설 비용이며, 대부분의 인출 자금이 프라임관 제2학관 신축에 사용되었음.

▶ 황진수 위원(부총장)
- 2018년도에 100억이 인출되었으며, 대부분의 인출 자금이 프라임관 건축 비용에 많은 비용이 투입되었다면, 전년대비 건축기금의 변동이 커야 하는데, 오히려 장학기금과 퇴직기금에서 변동폭이 큼. 그 이유에 대해 물음.

▶ 양현호 위원(예산과)
- 2018년도에는 희망퇴직 신청으로 인해, 퇴직기금이 많이 소요되었음.

▶ 간사
- 2018년도 100억 인출 상세내역에 대해서는 추후 보고 하기로 함.

▶ 황진수 위원(부총장)
- 임의특정기금에 대해 물음.

▶ 간사
- 임의특정기금과 임의특정기금에 구분되어 있는 지원 항목에 대해 설명함.

▶ 간사 : 안건 1. 2022학년도 임의기금 인출 및 적립 사항에 대해 설명함.
- 2022학년도 교비 및 발전 기금에서 총 22억8천만원이 인출되며, 24억6천만원이 적립될 예정임. 전년대비 순 증감액은 1억7천4백만원임. 2022학년도 2차 추경을 반영한 결과로는 365억이 예산상 기금 총액임. 현재 학교와 병원간에 협의 결과, 병원측에서 부속병원전입금으로 22억5천만원을 전출하겠다는 답변을 받음. 그러나 아직 해당 전입금이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예산서에는 반영되어 있지 않아서 해당 금액분의 차액이 발생함. 올해 2월말일까지 해당 전입금이 입금된다면, 그 금액이 합쳐진 총 38,792백만원이 결산상 적립금액이 될 예정임.

▶ 양현호 위원(예산과)
- 부속병원전입금은 당초 24억으로 잡혀져 있었으나, 법인 지표 달성을 위해 1억5천만원이 법인전입금으로 경유해서 입금될 예정임. 1억5천만원을 뺀 22억5천만원은 아직 결산서에 반영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해당 금액(22억5천만원)이 들어오더라도 수지 균형을 맞추기 위해 가인출처리하여 실제로는 인출하지 않을 예정임.

▶ 김광태 위원(관리처장)
- 최종적으로 2,425백이 전년대비 증가할 예정임.

▶ 간사 : 안건 2. 교비기금 대체에 대해 설명함.
- 특정목적기금으로 예치되어 있는 27억2천만원을 장학기금으로 용도 변경하고자 함. 특정목적기금은 교육기자재구입/학생취창업/학생실험실습/우수학생유치/교직원사회보험과 같이 5가지 항목으로 구분되어 있음. 과거 특정목적기금은 기타기금으로 분류되어 학교에서 임의로 사용이 가능하였지만, 법령이 강화되면서 기타기금이 특정목적기금으로 변경되었으며 위 5가지 항목처럼 세분화되어 예산을 관리하도록 하게 되었음. 현재 우리 학교는 인출보다는 기금을 계속 적립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세분화되어 운용하기에는 행정 처리에 불편함이 수반됨. 특정목적적립금을 장학적립금으로 전환하여 행정간소화 하고자함.

▶ 간사 : 안건 3. 3년 만기 정기예금 운용에 대해 설명함.
- 지금까지 교비/발전기금을 1년 단위로 예치하여 정기예금을 운용하고 있는 상태임. 투자상품으로 운용하기에는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정기예금으로 운용하고 있음. 우리학교는 과거 2000년도 초반대 증권회사에 투자하고 상당한 손실을 얻었던 경험이 있음. 2019년도에 이자수익 증대를 위해 한화투자증권, 삼성증권에 투자를 문의했던 적이 있으나, 리스크에 비해 이자수익이 크지 않았음. 현재 3년 만기 정기예금 상품들이 존재함. 3년 만기 정기예금을 예치할 경우, 향후 수신 금리 인하되었을 시 이자 수입 감소에 대한 방어 수단이 될 수 있음. 3년 만기 정기예금 상품을 예치할 은행에는 새마을금고도 포함되어 있으며, 새마을금고가 시중은행에 비해 약 1퍼센트 정도 금리가 높은 경향이 있음.

▶ 황진수 위원(부총장)
- 과거에 비해 현재 자금상태가 안정화 되어있기 때문에, 검증되어진 투자상품에 예치할 경우에는 리스크가 크지 않을 것으로 사료됨. 과거 손실에 봤던 경험은 주식형 상품에 든것이지 않을까 추정됨. 채권형 같은 상품에 안정적으로 들 수 있다면 리스크를 줄이고 이자 수익 증대를 기대함. 하나증권, 미래에셋 등 증권사에서 운용하는 있는 상품에 문의하여 대안을 제시할 것을 요청함. 현재 미국 금리 상황을 비추어 보았을 때, 장기적으로 3년 만기 정기예금 예치할 경우에 오히려 이자 수익을 극대화 시키지 못하는 상황을 초래하지 않을까 우려를 표함.

▶ 박성태 위원장(총장)
- 리모델링 같은 경우에도 교비 임의건축기금에 사용되는지 물음.

▶ 양현호 위원(예산과)
- 그동안 교비 임의건축기금으로 화장실 리모델링, 냉난방 공사 등으로 기금이 사용되었음.

▶ 양현호 위원(예산과)
- 3년 만기 정기예금 예치 시 30억 전후의 금액을 제안한 이유는 다른 기금들에 비해 건축기금의 규모가 가장 크

며 현재 적립금을 일시에 사용하는 상황이 없기 때문에 장기간으로 큰 금액을 가지고 정기예금 예치가 가능함.

▶ 최덕문 위원(변호사)

- 전북은행, 하나은행에서 맺은 기타협약에 의해 얼마정도 예치해야 기부금을 받을 수 있는 알고 있음. 안건 3에서 제시한 30억을 제외해도 문제가 없는 건지 물음. 정기예금을 운용하는데 발생하는 직접적인 수익말고 금융기관에서 보조해주는 간접적인 수익도 고려해야 함.

▶ 간사

- 금융기관별로 맺은 기타협약까지 고려하여 30억 규모를 결정한 상태임. 우리대학은 전북은행과 하나은행에 적립금이 예치되어 있는 상태임. 다른 은행의 이자 수익과 비교했을 시 전북은행, 하나은행의 이자 수익이 큼. 현재 전북은행이 우리학교의 주거래 은행이기 때문에 그 점을 고려하여 예치하고 있으며, 안건 3에 제시한 30억을 전북, 하나은행이 아닌 다른 은행에 예치하더라도 협약 범위 안에서 벗어나지 않음. 주거래 은행 관계에 있어서도 협약을 위반하는 상태가 아닌걸로 판단되어 30억 규모를 결정함.

▶ 박성태 위원장(총장)

- 금융기관 협약 내용에는 별도의 퍼센트 비율은 나와있지 않고 상당액 이상을 예치한다 라는 사항이 나와 있음. 이자수익에 대한 특별한 대안은 현재까지 없는 것으로 사료됨. 3년 만기 정기예금 운용할 것하는 것에 동의하며 폐회를 선언함.

※ 의결사항

1. 2022학년도 임의적립금 인출 및 적립 안건을 원안 의결하다.
2. 교비기금 대체 안건을 원안 의결하다.
3. 3년 만기 정기예금 운용 안건을 원안 의결하다.`

붙임 1. 기금운용심의회 회의자료 1부.
2. 기금운용심의회 참석자 명단 1부. 끝

직 명	총장(위원장)	부총장	기획처장	관리처장	
날 인					